산화안티몬“천정부지"

중국 홍수여파 … 인위적 조절 의혹

미국의 산화안티몬 가격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산화안티몬 가격은 94년4월의 1달러 수준에서 현재 2.5~4달러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공급부족 현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공급자들은 계약 가격을 무시하고 3배에 달하는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주요 산화안티몬 생산기업들은 94년4월 파운드당 10센트 인상에 이어, 5월 25 센트, 6월 40센트, 7월 75센트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제조되고 있는 산화안티몬은 전량 수입 안티몬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중 70%이상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나머지는 볼리비아, 멕시코, 남아공 등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현재의 산화안티몬 가격위기는 중국 수출업자들의 금융상 문제로부터 야기되어, 94년 초의 공급불능상태에 빠지면서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중국에서의 수출 절차상의 문제점과 6월중순의 홍수로 인한 중국 남부지역 광산으로부터 수송을 지연시켜 공급 중단사태를 유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분석에 의하면 현재의 공급위기는 지난 10년간 중국정부와 생산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조장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중국의 안티몬 생산은 수요 공급 측면보다 외화획득 차원에서 조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안티몬 공급위기는 중국 공급자들의 의도적인 물량 조절과 자연재해가 원인이고 물량확보를 위한 가수요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94년 말경의 안티몬 가격은 톤당 3400~3700 달러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화학저널 1994/10/3>